

기고

유 명 숙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소액으로 깨끗하고 건전한 민주정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8월 『이달의 좋은프로그램 상』으로 MBC 『같이편다』가 선정되었다.

꼭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한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에이다. 더하여 정치인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정치활동에 대한 칭찬과 지지, 동의를 담겨 있는 일종의 정치인의 성적표 역할을 하게 된다.

다. 때문에 깨끗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시작을 위해서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정치후원금은 외국인 및 법인·단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계좌로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계좌로 기탁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국민들의 소중한 정치후원금은 세상을 바꾸는 노력이며,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社 說

지역별 의료격차 줄여야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니 반가운 일이다.

지역마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거창권, 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는 등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 과목 수 등 필수요건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지역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역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천26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전공의, 간호인력 등 의료자원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지역 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 초심으로 안전에 만전을

태풍 '미탁'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수확을 앞둔 시골 농부들에 한숨소리가 안타까움을 더하는 이때,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겨울을 예고하고 벌써 2019년도 다 지나가는구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올 한 해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천재지변을 제외하곤 모든 사고가 그렇듯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여 미리 살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로, 안전을 강조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로, 안전을 강조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의 주체는 행정관서가 아닌 우리 개개인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뿌리박는 사회가 된다면 내 자신,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홀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속담처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불조심 표어처럼 다른 사람이 마보처럼 '기우(杞憂)'라고 할지언정 안전에 있어서는 돌아보고 확인하는 정성이 있어야겠다.

안전은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을 때만이 '안전'이라는 두 글자가 가정과 직장을 행복하게 지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2019년 남은 기간, 시작이라는 자세로 과거의 각종 안전사고를 거울삼아 더 이상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가을철 줄임운전 예방위해 휴식필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년간(2015~17년)의 줄임운전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줄임운전 사고의 치사율(사고건수 대비 사망자 수)은 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2명)의 2배였다.

운전자가 졸고 있던 탓에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사고 대응이 전혀 없이 그대로 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는 돌아보고 확인하는 정성이 있어야겠다.

이에 줄임운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스트레칭을 하라. 앉은 자세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졸음을 줄일 수 있다. 팔을 쭉 뻗으며 어깨를 풀어주거나 의자 등받이에 팔꿈치를支撐하고 허리를 곧추세우는 동작, 목 근육

을 풀어주는 동작이 도움이 된다.

둘째, 자동차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라. 사람이 졸음이 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뇌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창문을 닫은 채 장시간 운전을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져 졸음을 유발하므로 창문을 내려 환기시켜 주고, 창문은 운전석 쪽 창문과 대각선 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 효과적이다.

셋째, 너무 과식 하지 말라. 인체가 음식을 소화 시킬 때에는 체내에 산소요구량이 많아지게 된다. 산소요구량이 많아지면 하품을 하게 되고 졸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될 때에는 너무 배부르게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주변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